



[시장동향] 英, 식물성 우유 업체 허위 광고 금지 조치

- 유제품, 육류 등 동물성 식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철회 요구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가 스웨덴 귀리우유 업체 오틀리에 대해 동물성 식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광고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해당 업체는 자사 제품은 우유 대비 73%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TV 광고를 송출한데 이어 낙농 및 축산업이 비행기, 기차 등 전 세계 이동수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포스팅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신문 광고를 통해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25% 이상이 식품산업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그 중 유제품과 육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 인구가 완전 채식을 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49%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대중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출처 : just-food.com, 1월 26일 >

[마케팅] 美 낙농재단, 목장체험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 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목표



미국 낙농재단(Dairy Excellence Foundation)이 목장체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당 재단은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낙농가협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Discover Dair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목장체험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3월 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학교는 원하는 농가를 선정해 직접 계획을 수립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재단 측은 80곳을 선정해 차량부터 식사 또는 유제품을 포함한 간식 등 목장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낙농가들의 노력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낙농산업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이 섭취하는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agdaily.com, 1월 2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